



* 등급정보 (돼지) *

■ 등급별 출현율(전국)

- ▷ 3월 돼지도체 등급판정두수 : 946,497두로 전월대비 154,019두(19.4%) 증가, 전년동기대비 379,300두(28.6%) 감소
- ▷ 육질등급별 출현비율 : 1등급 2.3%, 1등급 71.1%, 2등급 21.7%, 3등급 1.7%
 - 1·1등급 출현율 : 73.4%로 전월대비 1.7%p 증가
- ▷ 규격등급별 출현비율 : A등급 35.9%, B등급 28.3%, C등급 15.5%, D등급 17.2%, E등급 3.2%
 - A·B등급 출현율 : 64.2%로 전월대비 5.1%p 증가, 전년동기대비 4.1%p 감소

■ 돼지 등급별 경락가격(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 ▷ 돼지도체(암돼지) kg당 평균경락가격(포등급 제외) : 6,765원으로 전월대비 482원 하락, 전년동기대비 2,712원 상승
- ▷ 육질 등급별 : 1등급은 7,695원으로 전월대비 672원 하락, 1등급은 7,124원으로 전월대비 322원 하락, 2등급은 5,979원으로 전월대비 73원 하락, 3등급은 4,143원으로 전월대비 284원 감소, 1등급과 2등급간 가격차이 1,716원
- ▷ 규격 등급별 : A등급은 7,522원으로 전월대비 159원 하락, B등급은 7,321원으로 전월대비 132원 상승, C등급은 6,792원으로 전월대비 76원 하락, D등급은 5,898원으로 전월대비 571원 하락

돼지등급별 출현두수 및 출현율

(단위 : 두, %)

구분	등급	11년 1월~3월	11년 3월	13개 도매시장 (공판장상장)	일반작업장 및 미경매 두수
계		2,716,231	946,497	105,729	840,768
		66,574	21,774	1,137	20,637
육질	1등급	2.5	2.3	1.1	2.5
	1등급	1,907,396	673,380	61,624	611,756
		70.2	71.1	58.3	72.8
	2등급	621,643	205,031	27,700	177,331
		22.9	21.7	26.2	21.1
	3등급	46,989	16,406	4,329	12,077
		1.7	1.7	4.1	1.4
	A등급	971,634	339,476	26,852	312,624
		35.8	35.9	25.4	37.2
	B등급	769,340	267,434	26,091	241,343
규격		28.3	28.3	24.7	28.7
	C등급	427,902	147,138	17,967	129,171
		15.8	15.5	17.0	15.4
	D등급	473,726	162,543	23,880	138,663
		17.4	17.2	22.6	16.5
	E등급	73,629	29,906	10,939	18,967
	2.7	3.2	10.3	2.3	

* 주1. 2007년 7월 1일부터 돼지등급판정기준개정에 따라 육질등급판정 시행 2. 육질등급자료는 E등급 제외하고 집계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년, 두, %)

구분	2009	2010	2010			2011		D-C	D-A	E-B	
			3월(A)	1~3월(B)	11년 2월(C)	3월(D)	1~3월(E)				
관정두수	13,888,063	14,589,063	1,325,797	3,657,395	792,478	946,497	2,716,231	154,019	△379,300	△941,164	
유질	1*	2.3	3.0	38.3	38.4	32.5	35.9	35.8	3.4	△2.4	△2.6
	1	70.0	70.6	30.0	29.9	26.6	28.3	28.3	1.7	△1.7	△1.6
	2	22.8	21.7	15.3	15.4	15.6	15.5	15.8	△0.1	0.2	0.4
	3	1.5	1.4	13.1	13	23.0	17.2	17.4	△5.8	4.1	4.4
	A	38.9	39.7	3.3	3.3	2.3	3.2	2.7	0.9	△0.1	△0.6
규격	B	30.5	30.2	29.8	29.8	29.8	26.6	28.4	△3.2	△3.2	△1.4
	C	15.5	15.4	15.3	15.5	16.0	15.6	15.9	△0.4	0.3	0.4
	D	11.6	11.4	12.8	12.9	13.2	23.0	17.6	9.8	10.2	4.7
	E	3.4	3.3	3.4	3.3	2.6	2.3	2.5	△0.3	△1.1	△0.8

가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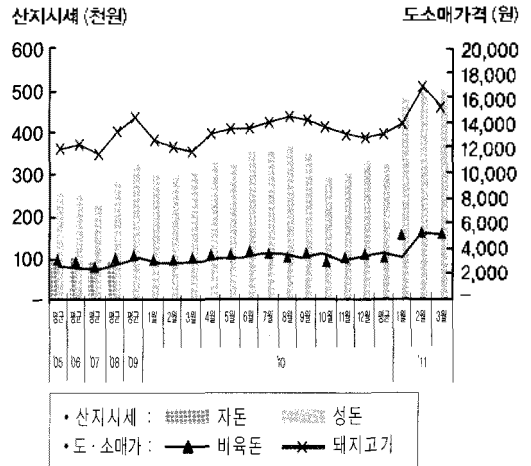
- 소비량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지난 4월 1일 전국 탕박 kg당 평균 가격이 6,231원, 11월에는 5,323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구제역으로 인한 이농제한이 완전 해제되어 출하불량이 풀리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향후 돼지 값은 줄어든 출하량과 따뜻한 날씨로 인해 행락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나는 등 소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동향

- 돼지 흐름별 시세변동 추이

년	구분	산지시세		도매가	소매가	
		돼지		전국	전국	
		자돈	성돈	비육돈	돼지고기	
05	연평균	92	253	3,730	14,888	
	06	연평균	94	248	3,649	15,438
	07	연평균	85	221	3,247	14,256
	08	연평균	85	276	4,046	16,820
	09	연평균	-	322	4,449	18,236
	10	1월	-	292	3,859	15,878
		2월	-	297	3,920	15,218
		3월	-	302	3,989	14,634
		4월	-	327	4,325	16,414
		5월	-	323	4,272	17,132
		6월	-	352	4,647	17,132
		7월	-	353	4,663	17,588
		8월	-	363	4,082	18,264
9월		-	343	4,535	17,886	
10월		-	289	3,817	17,198	
11월		-	300	3,963	16,484	
12월		-	329	4,344	16,076	
평균	-	320	4,232	16,859		
11	1월	-	480	6,342	17,804	
	2월	-	482	6,372	21,316	
	3월	-	497	6,565	18,998	



주) 1. 산지시세 단위 : 천원
 2. 도·소매가 단위 : 원/kg(도매가 도체 kg당 단가, 소매가 kg당 삼겹살 가격 기준)
 3. 09.3월부터 돼지산지시세 조사중단으로 성돈가격은 농협중앙회 추정치임

* 축산뉴스 (돼지) *

‡ 양돈산업 재건, 종돈 적정가격 거래 선언

FMD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종돈을 구입, 재기에 나서려는 양돈농가들이 종돈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돈협회와 국내 주요 종돈장들이 함께 하는 '양돈산업 재건을 위한 합리적인 종돈 거래 캠페인'이 진행된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3월 2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과 종돈장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FMD 이후, 양돈산업을 차질없이 조속히 복구해야 하는 것은 양돈업계 제1의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종돈 공급대란으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돈(F1 포함)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협회와 전국 10개 종돈장 대표들은 양돈산업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서는 종돈가격 안정화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잠시의 이익을 위한 종돈 가격 폭등과 수급불안정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입식 기간 중 후보돈 적정거래가격을 비육돈 가격+20~25만원 수준으로 준수하되 PRRS 유무나 위생수준에 따라 가격을 감안해 자율 거래하는 '종돈 적정가격 거래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FMD 비발생 농가는 가급적 외부 입식을 자제하고 자체선발을 통해 후보돈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살처분 농가에 우선 공급을 권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농장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PRRS 음성돈 등 우수 종돈 구입을 통해 향후 FTA 시장 개방화까지 경쟁력을 재정비한다는 각오로 재입식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1~2년후 정상적인 종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처분 농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종 질병의 청정화 및 현실적인 문제 타결에 좋은 기회로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입식시기를 조절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종돈 시장접근물량 확대

정부가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시장접근 물량을 증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3일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 같은 시장접근물량 증량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접근물량이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 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설정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경우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시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종돈 시장접근물량이 종전 1천850두에서 5천두로 3천150두가 늘어나고 종계는 46만1천수에서 66만1천수로 20만수 확대된다. 또 종자용 옥수는 323톤, 가공용 대두는 14만1천18톤, 감자·변성전분은 13만6천208톤, 고구마전분은 3만44톤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입입신고되는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재정부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농림수산식품부 내 정부·생산자·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림축산물 무역정책협의회'에서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요청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상 품목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이거나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많이 부족한 품목 등으로 국내 생산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